



12월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.

차형모
(일산서구 일산동)

행사리뷰 중 '2022 고양 창업페스티벌'은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고양시에 있는 백년가게 또는 전통 맛집 등 소개해 주시면 더욱 좋은 고양 소식지가 될 것 같습니다.

박정일
(덕양구 화정동)

'고양툰'이 참 좋았습니다. 잘 알지 못했던 정보를 만화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.

임성우
(덕양구 화정동)

다양한 행사와 즐길거리 등의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내용의 고양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박철수
(의정부시 신곡동)

'고양핫스팟' <꼬꼬 체험관> 콘텐츠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. 추운 겨울이 되면서 자녀들과 함께 어디를 가서 좋은 체험과 추억을 만들까 고민했는데 내 고향 고양특례시에 이렇게 훌륭한 체험관이 있다니 정말 꿈만 같네요. 게다가 오감체험, 감성여행, 동물들과 함께 하는 교감형 생태 동물원이라니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네요. 돌아오는 주말에는 자녀들과 <꼬꼬체험관>을 찾아 뜻깊은 시간을 보내렵니다.

이종목
(일산동구 마두동)

고양 소식지에는 청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있어서 좋습니다. 또한 '건강돋보기'를 통해 건강을 챙기게 되었고 금연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
※ 엽서 설문 참여 당첨자 : 김수나(일산동구 풍동), 임홍재(일산서구 일산동), 배병인(일산동구 백석동), 장동준(일산서구 탄현동)



고양시와 소통해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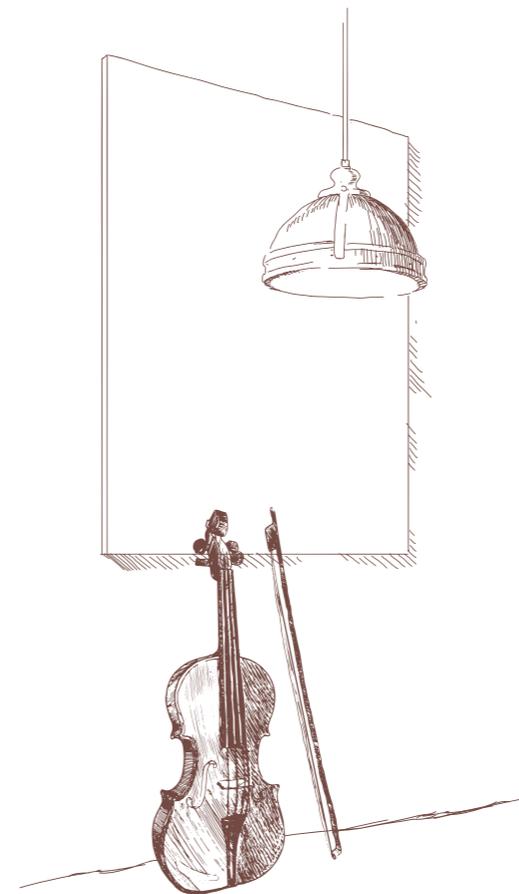
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이 가득한 고양특례시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!



고양원픽 | 시 홈페이지 | 고양TV | 카카오톡채널 | 페이스북 | 네이버 블로그 | 인스타그램

빈방

글. 김보승(일산서구 대화동)



오늘은 아름답고 고요한 아침이
나에게 말을 걸어오니
잠시 산책을 나가며
멀리 떠나있는
딸의 빈방을 들여다 봅니다

여섯 살 딸이
작고 앙증맞은 손으로
바이올린을 켜고 있습니다

하얀 아침빛이
내 얼굴에 가만히
내려 앉습니다

그 곁에서 추억의 긴 그림자가
내 눈가에 습기를 차게 합니다

그리고 누군가
빛나는 아침 햇살 사이로
나를 불러내어
딸의 아름다운
바이올린 선율 속으로
불러 들입니다

아직 내 눈가에는
차가운 습기만 가득 차오르는데.